



5월, 그 푸르던 날에 (초등 6단계)

단비어린이 | 김현희 지음



배경지식 알기

※ 다음 글을 읽고, 이 책의 배경이 되는 사건에 대해 알아보시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란?

1980년 5월에는 서울역에만 10만여 명의 대학생들이 모여 시위를 했어요. 대학생들은 유신 세력을 모두 처벌하고 신군부를 퇴진시킨 후 민주 정부를 수립하자고 외쳤어요. 이처럼 민주화 열망이 드높았던 1980년 5월의 서울을 가리켜 '서울의 봄'이라고 해요. 신군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보다는 강경진압을 택했어요. 비상계엄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모든 민주화 시위를 무력으로 탄압했지요. 이때 특히 광주 지역에서 민주화 시위가 거셌어요. 그러자 신군부는 광주 시내의 대학에 공수 부대를 계엄군으로 파견했어요. 대학에 군인들이 주둔한 거예요. 이에 맞서 대학생들은 전남대학교 앞에서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어요. 계엄군이 무자비하게 학생들을 구타하면서 진압했어요. 계엄군은 옆에서 말리던 시민들에게도 폭력을 휘둘렀어요. 며칠 후부터는 계엄군이 시민들을 향해 총을 쏘았어요. 많은 시민들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그러자 시민들은 경찰서를 습격해 무기를 빼앗은 뒤 시민군을 결성했어요. 한때 시민군은 전남 도청을 점령하고 계엄군을 광주 외곽으로 몰아내는 성과를 거두었어요. 계엄군은 헬기와 탱크를 앞세워 광주 시내로 진입했고 결국 시민군을 제압하고 도청을 장악했어요. 5·18 민주화 운동 때 191명의 시민과 학생이 사망했어요. 부상자는 852명이었지요. 하지만 이 비극적인 사건은 다른 지역에 알려지지 않았어요. 신군부가 언론을 강력히 통제했기 때문이에요. 5·18 민주화 운동이 국가 기념일로 지정된 것은 17년이 지난 1997년의 일이었어요.

이와 같은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지 생각하면서 <5월, 그 푸르던 날에>를 읽어보세요.



5월, 그 푸르던 날에 (초등 6단계)

단비어린이 | 김현희 지음



어휘력 쑥쑥 키우기 ①

※ <5월, 그 푸르던 날에>에 나온 어휘를 익혀봅시다. 각 낱말의 뜻을 ㉠~㉨에서 찾아 바르게 짝 지어 보세요.

① 계엄령	•	• ㉠ 지키고 보호함.
② 해코지	•	• ㉡ 군사적 필요나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일정한 지역의 행정권과 사법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이 다스리는 일.
③ 폭도	•	• ㉢ 남을 해치고자 하는 짓.
④ 수호	•	• ㉣ 폭동을 일으키거나 폭동에 가담한 사람의 무리.
⑤ 빨갱이	•	• ㉤ 의리, 정의, 도의 따위에 어긋남.
⑥ 독재	•	• ㉥ 힘이나 기량 따위가 모자람.
⑦ 역부족	•	• ㉦ 특정한 개인, 단체, 계급, 당파 따위가 어떤 분야에서 모든 권력을 차지하여 모든 일을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정치.
⑧ 불의	•	• ㉧ 공산주의자를 속되게 이르는 말.



5월, 그 푸르던 날에 (초등 6단계)

단비어린이 | 김현희 지음



어휘력 쑥쑥 키우기 ②

※ <5월, 그 푸르던 날에>에 나온 표현을 익혀봅시다. 아래 표에 제시된 한자성어와 그 뜻을 참고하여 1)~5)의 각 빈칸에 들어갈 내용의 기호를 쓰세요.

- 1) 탱크 위에 올라탄 영숙이 오빠는 _____의 위기에 봉착했다.
- 2) 창고가 대길이와 만성의 비밀 장소가 되자, 둘은 _____처럼 가깝게 붙어 다녔다.
- 3) 아들 셋 중 한 명이 만성 아버지의 시계를 훔쳐 구슬과 바꿨을 거라는 _____을 듣고 온 대길이의 어머니는 세 아들을 때리다가 그래도 화가 안 풀리는지 구슬 통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
- 4) _____이라더니, 마침내 엄마가 만성이가 끔뽏 숨겨 둔 시계를 찾아내고야 말았다. 만성 엄마는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말했고, 만성은 아버지에게 등짝이 터지도록 매를 맞았다.
- 5) 그런데 때문에 한 달 내내 붙어 있던 _____이란 글자가 떼어지고 없었다.

한자 성어	뜻
㉠ 백척간두(百尺竿頭)	백 자나 되는 높은 장대 위에 올라섰다는 뜻으로, 몹시 어렵고 위태로운 지경을 이르는 말.
㉡ 가담항설(街談巷說)	거리나 향간에 떠도는 소문, '뜯소문'으로 순화.
㉢ 막역지우(莫逆之友)	서로 거스름이 없는 친구라는 뜻으로, 허물이 없이 아주 친한 친구를 이르는 말.
㉣ 입춘대길(立春大吉)	'봄이 시작되니 크게 길하라'는 의미.
㉤ 사필귀정(事必歸正)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길로 돌아감.



5월, 그 푸르던 날에 (초등 6단계)

단비어린이 | 김현희 지음



내용 파악하기 ①

※ <5월, 그 푸르던 날에>를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해보세요.

1) 만성이가 광주에 전학을 왔을 때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2) 만성이가 가장 좋아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3) 아래채에 살고 있는 대길리와 만성이가 다툰 이유는 무엇인가요?

4) 만성이가 엄마 몰래 전당포에 맡기려던 물건은 무엇인가요?

5) 도둑질과 거짓말이 들통이 나자 만성이는 아버지로부터 어떤 벌을 받게 되나요?



5월, 그 푸르던 날에 (초등 6단계)

단비어린이 | 김현희 지음



내용 파악하기 ②

※ <5월, 그 푸르던 날에>를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해보세요.

1) 휴교령이 내려지자,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은 무엇인가요?

2) 대길이와 만성이가 친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3) 만성이의 담임선생님이 만성이네 창고에 숨어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4) 만성이의 담임선생님이 시위를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5) '정의롭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5월, 그 푸르던 날에 (초등 6단계)

단비어린이 | 김현희 지음



독해력/사고력 쑥쑥 키우기 ①

1) 다음은 이 책을 읽으며 차례별로 사건들을 간추려 적은 표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낱말을 쓰거나 핵심 내용을 직접 간추려 보세요.

차례	핵심 내용
뽕뽕다리와 구슬치기	아버지가 경찰서장으로 발령을 받게 되면서, 만성어도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로 전학을 오게 되지만, 만성이는 낯선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
탱크와 골방	대길이는 구슬치기를, 만성이는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프라모델을 조립하며 시간을 보낸다. 대길이는 부유한 만성이의 형편과 자신을 자꾸만 비교하게 된다.
창문과 끝	광주에 오기 전, 만성이는 서울에 남겠다고 투정을 부리지만, 아버지는 만성이에게 남자다워져야 한다고 다그치며 독단적으로 전학을 결정한다.
아래채와 위채, 경찰서	대길이네 위채에 살게 된 만성이는 대길리와 말다툼을 하게 되고, 아버지가 일하시는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에 가서 서울에 가고 싶다고 말하지만, 아버지를 설득하지는 못한다. 다만 경찰들의 태도가 너무 난폭하다고 생각한다.
구슬, 뼈라, 엘리제를 위하여	만성이는 아이들과 친해지기 위해 틈만 나면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연습을 한다. 느닷없이 학교에 나타난 영숙이의 오빠는, 데모를 하다가 머리를 다쳐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였다.

싸움과 까마귀	
시루점과 비밀 장소	
폭도, 퇴출, 출입금지의 시간들	
휴교령, 땅강아지 자세로	
진짜 탱크, 수수깡 열사	

2) 만성이와 대길이는 5월 18일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둘 중 한 명을 선택해, 후대의 어린이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을 편지글로 써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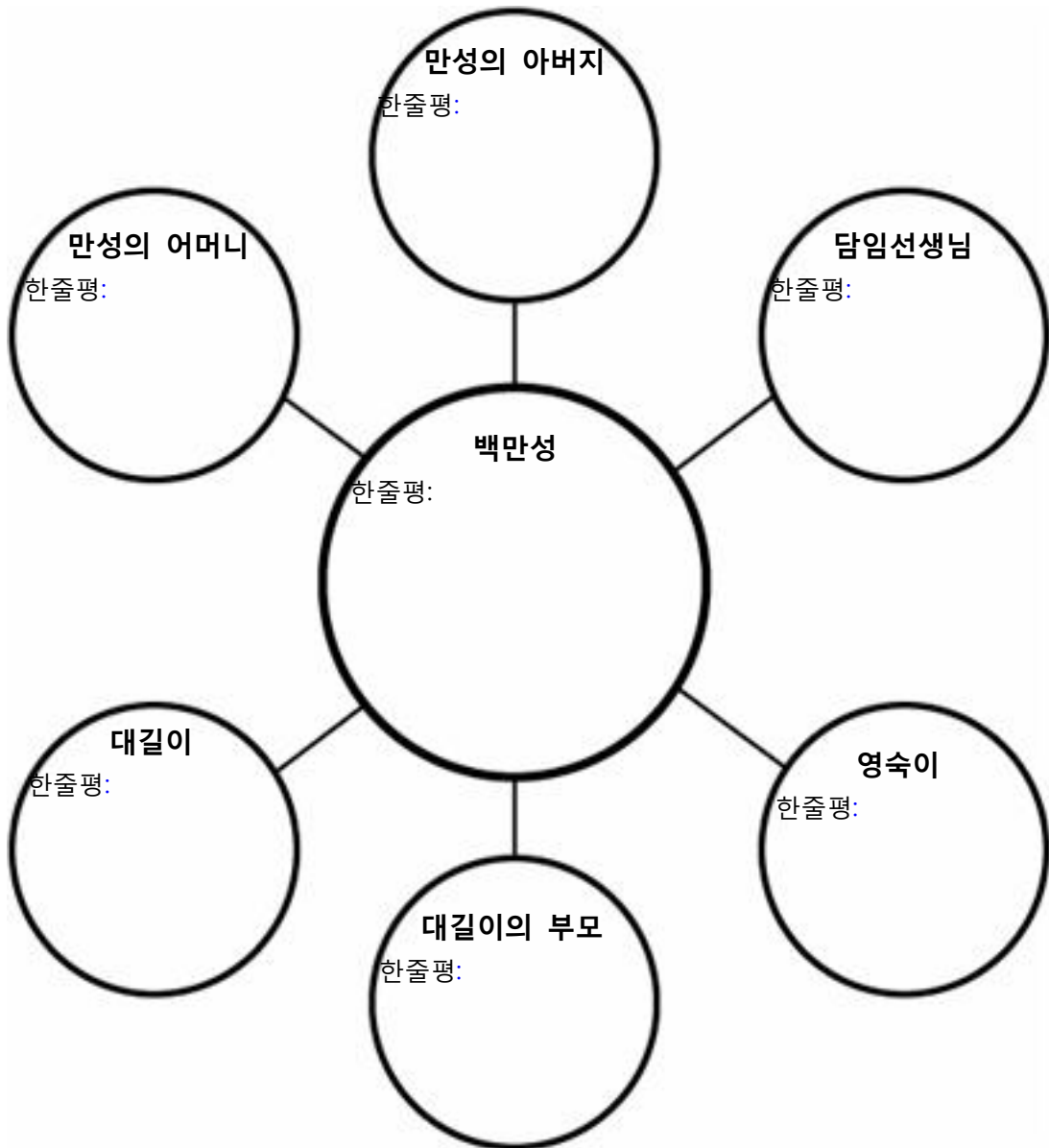
5월, 그 푸르던 날에 (초등 6단계)

단비어린이 | 김현희 지음



독해력/사고력 쑥쑥 키우기 ②

※ 다음은 이 책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입니다. 이야기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각 등장인물의 한줄평을 쓰고, 인물 간의 관계를 나타내어 보세요.





5월, 그 푸르던 날에 (초등 6단계)

단비어린이 | 김현희 지음



사고력/표현력 쑥쑥 키우기

1) 다음 대화에서, 만성이는 선생님의 말들이 자신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만성이의 태도에 드러난 문제점을 찾고, 만성이에게 조언하는 편지글을 써 보세요.

“폭도, 폭도, 하는데 폭도가 뭔지나 아냐, 만성아? 이 선생님은 불의를 보면 못 참는다. 다시 말하지만 힘없는 사람이 평화롭고 평등하게 사는 세상이 되기를 바랄 뿐이란다. 부당하게 욕심을 부리고 부정부패를 저지르며 독재를 일삼은 자들을 타도하려면 작은 촛불이라도 밝혀야 돼. 작은 촛불이 모여 커다란 촛불로 타올라 세상을 밝히는 법이거든. 불의를 보고도 가만있는 건 비겁한 짓이야.” 선생님은 무슨 독립투사처럼 말했다.

“작은 촛불은 빛이 멀리 나가지 않을 걸요? 그리고 누가 누구를 타도한다는 거예요?” 만성이는 잘 이해되지 않았다. ‘타도’나 ‘불의’ 같은 단어가 알 듯 모를 듯했다. 그리고 왜 그래야 하는지 몰랐고, 더군다나 만성이와는 아무 상관 없는 일이었다.

2) 만성이에게 창고는 대길이와 마음을 나누는 곳이자, 마음에 위안을 주는 공간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곳은 어디이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지 써 보세요.

나에게 위안을 주는 장소	
그렇게 생각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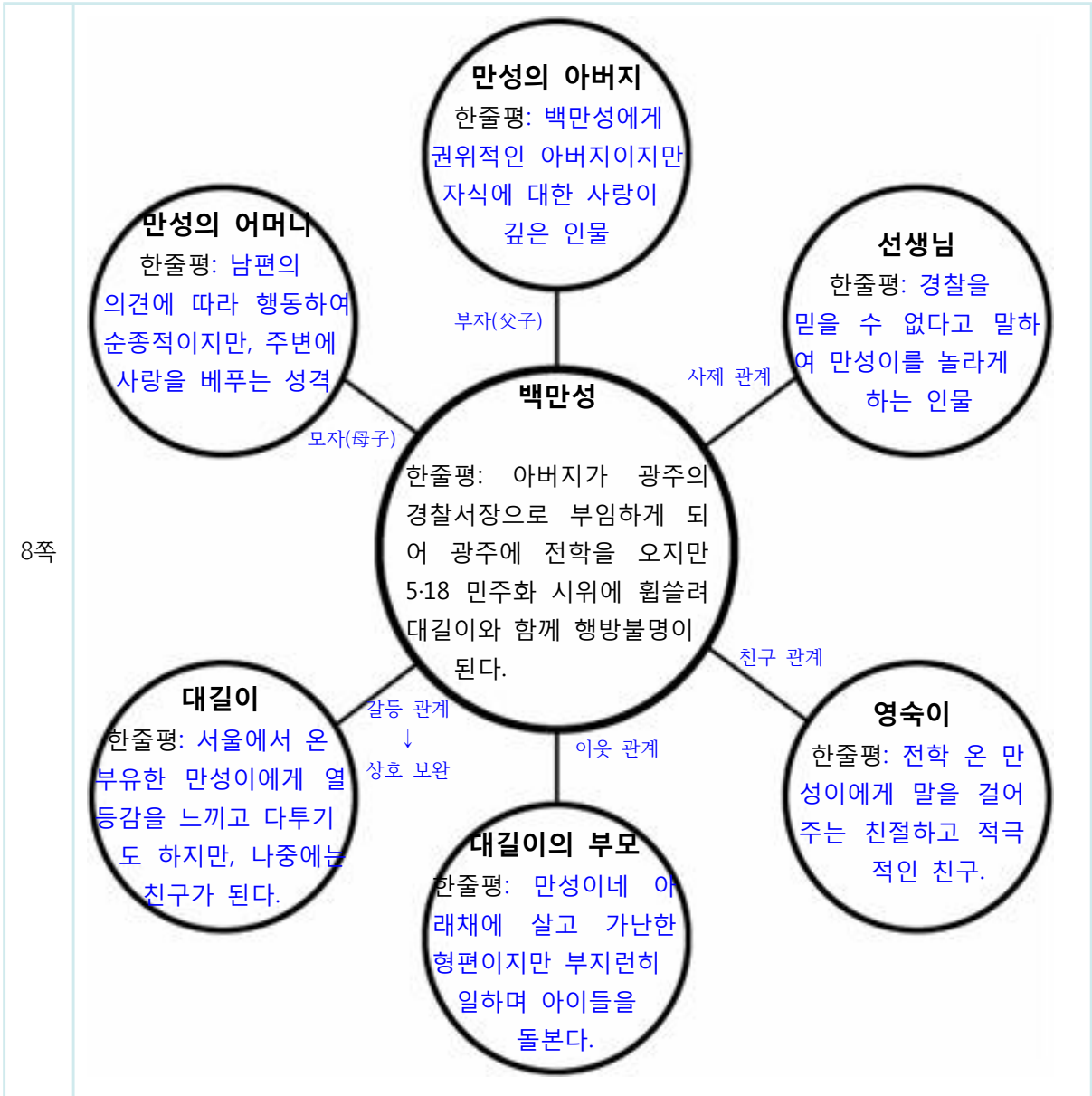
5월, 그 푸르던 날에 (초등 6단계)

단비어린이 | 김현희 지음



정답과 해설

2쪽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3쪽	1) ㉣ 2) ㉡ 3) ㉠ 4) ㉢ 5) ㉤										
4쪽	<p>1) 서울말투가 간살스럽다며 아이들이 이유 없이 놀리자, 만성이라도 학교생활에 정이 들지 않았기 때문이다.</p> <p>2) 친한 친구들과 모형 탱크를 만드는 일</p> <p>3) 대길이는 만성이가 잘난 척 한다고 생각해서 자존심이 상했다. 대길이가 비속어를 사용하자, 만성이라도 세들어 사는 대길이의 형편을 언급하며 말다툼이 시작되었다.</p> <p>4) 만성이 아버지의 시계</p> <p>5) 바깥출입 금지령</p>										
5쪽	<p>1) 광주가 위험에 빠졌다고 말씀하시며, 집 밖으로 되도록 나가지 말라고 당부했다.</p> <p>2) 창고에서 우연히 마주친 이후, 그곳을 둘만의 비밀 장소로 삼고 구슬치기 같은 놀이를 함께 하며 많은 시간을 보냈다.</p> <p>3) 경찰서장 집이면 무사히 밤을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서</p> <p>4) 자유를 억압하고 폭력으로 죄 없는 사람을 탄압하는 사람들에 저항하기 위해서</p> <p>5) 모든 사람이 자유에 대해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사회적 대우나 보상, 처벌 등에 있어 '마땅하게 받아야 할 몫'을 공정하게 받는 것</p>										
6~7쪽	<p>1) (빈칸에 들어갈 말은 순서대로) 광주, 탱크, 경찰서, 구슬치기</p> <table border="1"> <tr> <td>싸움과 까마귀</td> <td>엄마는 남편의 시계가 없어지자, 형편이 어려운 대길이에 아이들을 의심한다. 아버지의 시계를 훔쳐 전당포에 맡기려던 만성은 어머니에게 거짓말을 한다.</td> </tr> <tr> <td>시루점과 비밀 장소</td> <td>대길의 엄마는 시루점을 치며 만성의 엄마와 화해를 하고, 시계를 숨기려던 만성은 창고에서 대길이를 만나 친해지게 된다. 창고는 만성과 대길이의 비밀장소가 된다.</td> </tr> <tr> <td>폭도, 퇴출, 출입금지의 시간들</td> <td>늦은 밤, 만성은 창고에 숨어든 선생님을 숨겨주게 되고, 선생님에게 경찰을 믿을 수 없다는 말을 듣는다. 만성은 시계를 훔친 사실이 들통이 나 바깥출입이 금지되는 벌을 받는다. 부모님은 창고에만 있는 만성을 걱정한다.</td> </tr> <tr> <td>휴교령, 땅강아지 자세로</td> <td>학교는 휴교령이 내렸고, 광주에는 경찰이 아닌 군인들이 물려들고 있었다. 아이들은 시민들이 왜 군인에게 쫓기는지 자세한 상황을 알지 못한다.</td> </tr> <tr> <td>진짜 탱크, 수수깡 열사</td> <td>구슬치기 놀이를 하러 모인 만성과 대길이는 전쟁터와 같은 시위 현장에 휩쓸려버리고, 어른들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그대로 행방불명이 된다.</td> </tr> </table> <p>2) 생략.</p>	싸움과 까마귀	엄마는 남편의 시계가 없어지자, 형편이 어려운 대길이에 아이들을 의심한다. 아버지의 시계를 훔쳐 전당포에 맡기려던 만성은 어머니에게 거짓말을 한다.	시루점과 비밀 장소	대길의 엄마는 시루점을 치며 만성의 엄마와 화해를 하고, 시계를 숨기려던 만성은 창고에서 대길이를 만나 친해지게 된다. 창고는 만성과 대길이의 비밀장소가 된다.	폭도, 퇴출, 출입금지의 시간들	늦은 밤, 만성은 창고에 숨어든 선생님을 숨겨주게 되고, 선생님에게 경찰을 믿을 수 없다는 말을 듣는다. 만성은 시계를 훔친 사실이 들통이 나 바깥출입이 금지되는 벌을 받는다. 부모님은 창고에만 있는 만성을 걱정한다.	휴교령, 땅강아지 자세로	학교는 휴교령이 내렸고, 광주에는 경찰이 아닌 군인들이 물려들고 있었다. 아이들은 시민들이 왜 군인에게 쫓기는지 자세한 상황을 알지 못한다.	진짜 탱크, 수수깡 열사	구슬치기 놀이를 하러 모인 만성과 대길이는 전쟁터와 같은 시위 현장에 휩쓸려버리고, 어른들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그대로 행방불명이 된다.
싸움과 까마귀	엄마는 남편의 시계가 없어지자, 형편이 어려운 대길이에 아이들을 의심한다. 아버지의 시계를 훔쳐 전당포에 맡기려던 만성은 어머니에게 거짓말을 한다.										
시루점과 비밀 장소	대길의 엄마는 시루점을 치며 만성의 엄마와 화해를 하고, 시계를 숨기려던 만성은 창고에서 대길이를 만나 친해지게 된다. 창고는 만성과 대길이의 비밀장소가 된다.										
폭도, 퇴출, 출입금지의 시간들	늦은 밤, 만성은 창고에 숨어든 선생님을 숨겨주게 되고, 선생님에게 경찰을 믿을 수 없다는 말을 듣는다. 만성은 시계를 훔친 사실이 들통이 나 바깥출입이 금지되는 벌을 받는다. 부모님은 창고에만 있는 만성을 걱정한다.										
휴교령, 땅강아지 자세로	학교는 휴교령이 내렸고, 광주에는 경찰이 아닌 군인들이 물려들고 있었다. 아이들은 시민들이 왜 군인에게 쫓기는지 자세한 상황을 알지 못한다.										
진짜 탱크, 수수깡 열사	구슬치기 놀이를 하러 모인 만성과 대길이는 전쟁터와 같은 시위 현장에 휩쓸려버리고, 어른들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그대로 행방불명이 된다.										



9쪽

1) (예시답안) 만성아, 정의롭지 못하다는 것은 누군가 부당하게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의미야. 불의가 묵인되는 사회가 존재한다면 가장 힘없는 사람들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야. 피해자는 만성이 네가 될 수도 있고, 사회 전체가 될 수도 있겠지. 그래서 국민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누리려면, 늘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정치에 참여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거야.

() 민주주의와 독재의 차이를 모르는 학생에게는 매체를 활용해 의미를 찾아보게 합니다.

-민주주의: 국민의 의사가 존중되고 국민이 권력의 주인으로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치 제도. / -독재: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1인 또는 소수의 특권층이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는 권위적인 정치 제도.

2) 생략.